

2013 7.07 연중 제 14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66,10-14 ☞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쏟아줄 것이다.>

제 2 독서 : 갈라티아서 6,14-18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복 음 : 루카 10,1-12,17-20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제 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백성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50 년동안 바벨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때입니다. 저도 보릿고개는 알지만, 6.25 전쟁이 끝난후 그 비참하고 처절했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그 러나 뉴스를 통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끝난후의 그

참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백성도 그때 그렇게 비탄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때에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지말고 내말을 믿고 기운을 차려라,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되찾으라고 위안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 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실상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내말을 따라서 너희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믿고 충실히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흔 두명의 제자들을 파견 하시면서 말씀만이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즉 악령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시키는 힘을 주십니다. 솔찍히 저는, 왜? 나에게는 그런일이 일어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다. 왜? 일흔 두명의 제자에게는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사실 병자성사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은 하였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 입니다.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앞을 보게되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게되는 그런 기적들 말입니다. 왜 이런기적이 예수님 시대에는 일어났는데, 왜? 우리때는 안 일어나는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때보다도 더 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지금 나이는 삼십이조금 넘었읍니다만 선천적인 병으로 사지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고, 두개의 작은 발이 엉덩이에 달려있지만 한쪽발만 두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전도사로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 그는 볼놀이도하고 악기도 연주합니다. 힐링캠프에 닉 부이치치가 나왔을때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악조건에서 어떻게 항상 웃음을 잃지않을수 있느냐고. 사실 닉 뿐만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어려운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네손가락만으로 피아노 명연주자가 있고, 손이 없이 발로만 그림을 그리는 분 등등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활동하며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닉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면 항상 웃을 수가 있다고. 내가 가진것에 대하여 감사할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수 있다고.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해질수 밖에 없다고. 그런 그는 정신적으로는 핸디캡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어떤면에서는 정신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음에도 늘 부족해 하고, 그래서 늘 불만과 걱정,근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용기와 힘은**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입니다. 닉과 결혼한 여자는 미스 유니버스에 나올정도의 미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닉 부이치치의 영혼이 깨끗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그 사람의 몸매나 얼굴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영혼의 팔다리가 없고, 어쩌면 심장마저 없어져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내안을 들여다 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영혼의 핸디캡을 살펴보십시오. 하느님께 받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양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강론을 시작 하면서 <조카가 삼촌에게 받은 선물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어머니의 지시를따라 삼촌에게 자기가 받은 것에대한 감사의 인사 전화를 하였다고 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스게 소리만은 아닙니다. 비록 선물은 별것이 아닐지라도 조카에 대한 삼촌의 관심은 높히 사야되지않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게는 집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비지니스가 있고 ... 이런 모든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제 자신 또 하나 최근에 느낀점은, 하느님에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축복을 느끼기위해서는 그러한 체험을 위한 내 안에서의 노력이 부단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계속 끝없이 노력하였을때에 그것이 내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성체를 영하시면서 황홀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안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는 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영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그냥 단순한 밀떡이라고만 여겨지신다면, 그래서 이런 무덤덤한 상태에서 벗어나, 나도 성인들처럼 성체의 신비에 깊이 들어가 황홀경을 느껴보고싶으시다면, 그러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든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올것입니다. 어떠한 사랑도 하느님의 사랑보다 클수는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느님의 능력보다 더 클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0-14 ㄷ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11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13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4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6,14-18

형제 여러분, 14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5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16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17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18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2.17-20<또는 10,1-9>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1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3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4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5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8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10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11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7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20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